

‘옥장 장주원’展 광주시립미술관서 2월 22일까지

옥공예 50년 맥을 이어온 장인의 숨결



녹옥사구해태항로(위), 백옥봉황연항로(아래).

“부드러운 옥(玉)의 성질은 끈기와 온유, 은은함, 인내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잘 맞지요. 석기시대부터 예술품은 한국역사와 함께 흘러온 기상의 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옥장인 보유자 16호, 1996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玉匠)으로 지정된 장주원 선생(73)은 2월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에서 ‘옥장 장주원’展을 연다.

“다이아몬드가 광택을 내뿜는 적극적인 아름다움으로 빛을 반사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반면 옥은 빛을 내부로 향해 머금은 흡수로 우리의 미덕인 겸손에 비유됩니다.”

서양인들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 동양에서 옥은 인간이 지닌 최상의 품성에 견주어지며 영험이 깃든 보배로운 약으로까지 인식돼 왔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옥이 한국 고유의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 낯설다. 조선 시대 이후 양반집 규수의 장신구로만 인식돼 오면서 단순히 노리개, 비녀, 가락지 같은 소품 정도라면 옥의 활용이 머물고 있다.

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랜 끈기와 인내로 전통 옥공예의 맥을 잇고 재현하는데 한 평생을 바쳤다. 재래식 작업 과정을 고수하며 채석, 디자인, 성형, 구멍 뚫기, 흠파기 등의 세부조각과 광택 과정을 거쳐 절묘한 기술로 역사에 남을만한 걸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의 작업은 공예를 넘어 예술로 인정받으며 단순한 전통과 기술의 전승 차원을 넘어 인간능력의 확장이라는 현대 예술로 평가받는다. 8000년 옥의 종주국을 자칭하는 중국에서조차 터득하지 못한 환주(環周) 기법과 작품 ‘해태 자연석 이중 연결고리’에서 보여 지는 이중연결고리 기법 등이 그러하다.

“옥 자체가 지닌 성질로 인해 오랜 끈기를 요구받는 옥공예는 환영받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통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라도 후손의 힘을 다했지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20여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장인 정신은 전시장의 70여 점 옥공예 작품이 증명한다. 옥의 장식성과 공예품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독보적인 창조성은 한국예술의 자부심이다. (062510-0700)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기도하는 여인의 ‘인생 드라마’

불자가수 유지나 새 음반 발표

‘구름 도는 심산계곡 작은 암자에 백팔염주 돌러가며 기도하는 저 여인, 무슨 사연 저리 깊어 구곡간장 애태우며 기도하는 여인 백팔염주에 눈을 적실까.’

찬불가 가수로 활동 중인 가수 유지나 씨가 CD음반 ‘인생드라마’를 발매했다. 지난 해 히트곡 ‘쓰리랑’에 이어 흥겨운 노래를 담은 ‘쇼쇼쇼’와 동시 출반한 찬불 가요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명국환) 회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해 온 그의 불심을 오롯이 담은 이번 음반은 서산마루 낙조와 같이 머무는 삶을 노래한 ‘윤희의 배’와 부모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부모은중’을 비롯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12곡이 수록됐다.

가연숙 기자



잊혀진 고구려 불교, 찬란한 베일 벗다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2009년 맞아 고구려실 개관

고구려불교의 생생한 삶의 현상이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2009년을 맞아 고구려실을 개관했다.

지배층의 권위와 신분의 상징인 고구려 위세품을 전시한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다’, 삶의 영역 안에서 지배적인 힘과 권위를 죽음의 공간 속에 표현하려 했던 대형 무덤을 전시한 ‘고구려 무덤, 삶과 죽음의 경계’, 당시 복잡한 풍아시야 대결 구도 안에서 영역 확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간 고구려 철갑기병(鐵甲騎兵) 유물을 전시한 ‘영토 확장, 대륙을 향하다’, 한강 유역 이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고구려 문화의 실체를 보여주는 ‘남진(南進), 아리수를 넘다’, 고구려인의 마음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부처, 무수한 깨달음을 구하다’의 여섯 테마로 구성됐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속에서 고구려 사회 운영에 중요한 축이 되었던 불교는 국가와 왕실의 후원 하에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 고구려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연가 7년명 금동불입상’, ‘영강 7년명 금동관개’ 등에 새겨진 명문들은 고구려 불교사상의 일면을 집약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구려 불상으로서 출토지가 가장 명확한 것으로 알려진 ‘원오리사지 소조불상(사진)’ 300여점 중 일부가 새롭게 복원 전시된다.

1937년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사지에서 출토된 소조불상군은 현재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불상은 거의 없고 표면에 채색한 흔적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다. 불상 204점, 보살상 108점으로 모두 312점의 불상 파편이 발굴됐다.

좌상과 입상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대좌와 불신(佛身)이 한 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보살상은 거의 같은 양식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불·보살상은 누구나 도(道)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사상에서 나온 천불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좌상은 소발(素髮)의 머리 위에 높고 큼직한 육계가 얹혀 있고 얼굴은 둥글고 가늘한 편이며 반쯤 뜬 눈이나 미소를 띠고 있는 표정이 부드럽고 온화해 친근감을 준다. 두 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는데 삼국시대 불상의 수인(手印)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 불·보살상에 나타나는 부드러운 형태미, 법의의 착의방식, 옷주름 표현 등을 통해 6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천불사상의 수공과정과 당시 불교신앙의 성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02/2077-9465)

가연숙 기자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 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안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택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성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